

9월7일 개막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22개국 31개 전시 참여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7월호

# 국가·문화 경계 넘는 창의적 상상력 구현한다

### 지역 작가 참여 '광주 파빌리온' 운영 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참여 두드러져 퍼포먼스·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 눈길

파빌리온은 전시장이나 박람회장의 본 전시장 외에 활용되는 부속적인 전시장을 일컫는다. 미술관 등 문화예술과 함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 개막)에서는 모두 31개 파빌리온을 만난다. 2018년 3개 기관에서 시작해 지난해 9개, 그리고 올해 31개로 확대해 광주 전역을 동시대 문화예술 현장으로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파빌리온은 국가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기획자, 기관과 나라의 콜라보레이션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따르면 이번에는 모두 31곳이 참여한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에 따라 올해 파빌리온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광주지역 미술관 등서 펼쳐지는 동시대 미술 향연  
파빌리온은 광주지역 미술관, 갤러리, 문화기관 등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모두 31개 파빌리온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스페인 이자스군 친차야, 코스모우먼 작 '별자리로서의 장소'. <광주비엔날레 제공>

에서 진행된다. 광주 역사를 안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등도 포함돼 있다.

국가관은 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캐나다·중국·덴마크·핀란드·독일·인도네시아·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미얀마·네덜란드·뉴질랜드·페루·필리핀·폴란드·카타르·싱가포르·스웨덴·태국·베트남 등 총 22개국이다.

이스라엘과 스페인은 미디어아트를, 영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결과물을 전시로 보여준다. (영국은 한국국제교류재단-영국문화원 파빌리온으로 명칭을 사용한다.) 아프리카 출신 25명 작가가 보여주는 아프리카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주관하는 아메리카 파빌리온은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 작품을 선보인다.

스위스는 파빌리온이 아닌 광주 일대에서 대규모 퍼포먼스를 온라인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3개 국가관에서 국내 기관과 기획자를 해당 국가관 기획자로 선정한 파빌리온도 있다.

중국 파빌리온은 중국문화원과 한국 Art Soul(대표 최성록)에서 전시를 주관하며 신항섭이 기획을 맡았다. 미얀마 파빌리온은 국내 K&L 뮤지엄(대표 김성민)이 전시를 주관, 김진형 학예실장이 기획한다. 이탈리아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문화원에서 정소익(2023년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을 이탈리아 파빌

리온 기획자로 초대했다.

◇지역사회와의 연결, 공유 '플랫폼' 지향  
언급한 대로 아시아 국가들 참여가 많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아세안센터가 전시, 스킨닝, 콜로키움 등 프로그램을 펼친다.

'광주 파빌리온'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미희(전 경기도미술관장)가 '무등·고요한 긴장'(광주시립미술관)을 펼친다. 김신운주, 김용현, 나현, 송필용, 안희정, 양지은, 오종태, 윤준영, 이강하, 이세현, 임수범, 장종완, 장한나, 정현준, 조경태, 최종운, 이승환, 함양아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한편 파빌리온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준비해 왔다. CDA 홀론은 조선대 학생들 및 지역 무용단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기획자와 작가들은 리서치 당시 오월어머니회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올해 파빌리온에서는 국가와 같은 경계를 넘어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이 혼재된 동시대 미술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특히 아시아 참여가 두드러진 것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상점이라는 사실과 맞닿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일 홀리폴리론제 작 '무제'. <광주비엔날레 제공>

## 'N행시 업고 튀어!'

### 광주여성가족재단 시민 이벤트 9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시민참여 이벤트 'N행시 업고 튀어!'를 오는 9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광주아이키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인증을 거치면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육아 중인 부모(예비) 등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다 같이 돌봄' 가치를 확산시키고, 아빠 육아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맘편한내일', '아이키움', '다 같이 돌봄' 중 하나의 제시어를 선택해 N행시를 작성하면 된다. 총 155명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및 우수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오는 7월 24일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발표)

광주아이키움 SNS채널(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블로그)을 추가하고 캡처한 뒤, 이벤트 참여 QR코드를 통해 N행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된다.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은 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육아칼럼, 육아웹툰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돌봄서비스 이용 예약신청과 AI챗봇을 통한 24시간 육아 질의상담 등이 가능하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광주 시민들이 모두 함께 공동육아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머니의 시간 #11'



'어머니의 시간 #1'

## 소박하면서도 따스한 '어머니의 시간'

### 김성민 사진전,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엄마, 어머니, 모친,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유아기와 청소년 시절 때는 대체로 '엄마'라고 부른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말할 때는 더러 '모친'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전라도 지역에서 부르는 '어머니'의 방언이다. 단순한 방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는 정감과 아울러 따스함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김성민 사진작가의 작품을 보면 '어머니의 시간'이 군데군데 녹아 있다. 오는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어머니의 시간'은 소박하면서도 따스한 기억을 소환한다. 청산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작가에게 청산도의 풍경과 추억, '슬로시티 청산도 돌담' 등은 주요 소재였다. 이러한 소재들은 결국 '어머니'라는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대상으로 수렴된다.

이번 전시에서도 김 작가 작품의 기저에는 모두 '어머니'가 드리워져 있다. 작품에 늘어난 등장하든, 안하든 그의 사진은 모두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초가집 마당에 널린 붉은 고추는 피아냥에서 힘있게 고추농사를 지었을 어머니의 시간을 조점화한다. 고적한 시골집 마당에 널린 고추에는 자식들에게 보낼 어

머니의 마음 또한 담겨 있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을 배경으로 빨래를 내는 어머니 모습은 평화롭다. 남루한 듯 보이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은 어머니의 삶과 모습이 오늘의 우리를 키워낸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해질녘 뒷마루에 앉아 상념에 잠겨 있는 어머니 사진은 몽롱하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삶의 황혼에 다다른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의 본편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여운을 준다.

이렇듯 김 작가의 작품에는 기억의 무게와 기억의 언어가 드리워져 있다. 단순한 개인사적 기억이 아닌 사진을 매개로 사회적, 문화적, 미학적 의미와 정체성을 환기하며 그것을 조율하는 것은 평면성과 정면성이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청량한 바람에서 '공기 읽기'는 나의 시각적 표현의 연습 시간"이라며 "2020년과 지난해 출간한 작품집은 시간적 요소를 매개로 인간의 경험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행준 미학박사는 "사진의 배경은 대부분 드넓은 공간이 아니라 평면이다"며 "흙담, 돌담, 방, 창호 문이 배경을 막고, 삶을 일구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소품처럼 배치된다"고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키앙



## '촌(村)캉스, 로컬에서 여름 휴가를' 정관채 염색장 50년 쪽빛 한길 인생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키앙' 7월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촌(村)캉스, 로컬에서 여름휴가를'이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농촌과 산촌, 어촌 체험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는 '촌(村)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합조개를 잡고,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등 자연 속에서 힐링과 휴식, 체험, 놀이, 먹거리를 융합된 특별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젓하게 '차박' 등 캠핑을 하는 MZ 세대로 늘고 있다. '블루 워케이션'의 로망 전남도의 여행지원책도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쪽염색 전통을 잇는 정관채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이다. 나주 영산강변 쪽마을에서 태어난 스무 살 미술학도는 은사로부터 쪽 씨를 건네받으며 '운명'처럼 쪽염색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화학염료의 보급으로 우리 땅에서 사라진 쪽염색의 전통을 살려냈다.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도입한 쪽염색 제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관채(65) 염색장(染師)의 50년 쪽빛 한길 인생을 듣는다.

화제의 문화현장으로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을 다녀왔다. 2년에 한 번씩 이탈리아의 베니스는 '물의 도시'에서 미술의 도시로 변신한다. 올해로 창설 129주년을 맞은 베니스 비엔날레 덕분에이다.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개막한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본전시장이자 디자니 공원과 아르세날레 등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오는 11월24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80여 개국 331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미술 올림픽'의 뜨거운 현장을 소개한다.

예향 40주년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테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찾아서'이다.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경쾌한 선암사, 사계절 아름다운 '장춘굴길'을 따라 오르는 대항사는 여름을 잊게 하는 우리나라 대표 사찰이다. 신안과 순천-보성에서는 한여름의 피아노 아래 힘차게 살아 숨 쉬는 광활한 갯벌을 만날 수 있다. 화순의 고인돌 공원을 둘러보면 바위에 얽힌 다양한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인류가 보호해야 할 전남의 세계유산을 찾아 떠난다.

멋과 맛 함께, 남도 유람이 찾아간 곳은 미항(美港) 여수다. 친환경 아쿠아리움, 남도 둘레길, 두문포 베니스마을, 여수 밤바다, 365개의 아름다운 섬들... 여수의 여름날은 찬란하다. 계장백반과 거문도 해풍속 등 특산물 가득한 '섬섬여수'의 한여름 매력을 찾아 나서보자.

이외에 '해외문화기행' 여행자들의 로망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호남 서화가 열전' 네 번째 이야기 '남종화의 뿌리, 소치 허련', '호남의 누정' 담박한 사유 깃든 소박한 거처 '광주 관수정'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AI아트포파'로 800만 조회를 기록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지난해 열렸던 광주시립합창단 '여름의 끝자락을 합창과 함께' 장면.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 광주시립합창단의 선물 '여름밤의 휴식'

### 1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다가온 장마로 야외 활동이 움츠러드는 요즘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원한 공연장을 찾아 예술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껴도 좋을 것 같다.

광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 제196회 정기연주회 '여름밤의 휴식'을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해외 작곡가가 '여름'을 주제로 창작한 합창곡을 비롯해 개구리, 벌 등 여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객원 지휘에 정현관.

먼저 영국의 음악가 프레데릭 텔리우스가 1917년 작곡한 '여름밤 물 위에서 부르는 노래'로 막을 연다. 텔리우스는 유독 목가적인 환상 속에서 여름을 사랑했는데, 그중에서도 한 편의 교향시 같은 멜로디로 '들뜬 여름 분위기를 연출하는 곡이다. 무반주 6성부 합창곡이며 전남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합창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테너 유정석이 노래한다.

이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한국 가곡들을 만날 수 있다. 조성은이 작곡

한 '별', 김규환이 편곡한 '내마음'을 비롯해 김동진 편곡 '가고파' 등이 올려 퍼진다.

마누엘 폰체 곡 '내 마음의 작은 별'은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세레나타며 첼로 선율의 중후한 울림이 이목을 끄는 곡이다.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또한 특별 출연하는 첼리스트 김황균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합창단 관계자는 "첼로의 울림을 통해 청중들은 '초원에 있는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성·여성 합창단의 매력적인 무대도 준비돼 있다. 표현전, 정지희가 부르는 '사랑 사랑 초록바다', 김은혜·지영남·김영태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이 그것. 19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곡가 겸 가수 한울의 노래 '조울'도 올려 퍼진다.

끝으로 모듬북 연주자 도경환은 한국민요 '아리랑'을 들려주며 '개구리 소리', '거짓부리' 등을 광주시립합창단 단원들과 함께 부른다. 전통적인 멜로디와 화려한 음색이 어우러져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